

민주연구원 '혐오는 어떻게 학교에 들어오는가' 정책브리핑 발간

-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시대 시민성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의 과제 제언
- “혐오와 조롱의 정치적 소비 경계하고, 존중과 책임의 문화 회복해야.”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혐오는 어떻게 학교에 들어오는가 - 디지털 시대 시민성 교육의 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단순한 학생 선수의 개인의 일탈이나 스포츠맨십 논란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되고 소비되던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학교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으로 재현된 사례로 분석하였다.
 - 브리핑은 청소년들이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갈등, 정치적 논쟁을 교과서보다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통해 먼저 접하며, 표현에 대한 사회적 의미보다, 놀이적 속성과 또래 집단의 유대감으로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은 특정 학교나 일부 학생만의 문제로 축소해서 볼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 혐오와 조롱 문화가 청소년의 일상과 학교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라고 밝혔다.
 - 이어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시민성 위에서 작동한다.”며, “정치권 역시 혐오와 조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존중과 책임의 언어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브리핑은 혐오와 조롱 문화가 밈과 유행어, 놀이문화의 형식을 통해 탈정치화 되고 일상화되면서 학교 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플랫폼은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혐오와 조롱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높은 확산성을 갖는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
 - 이번 사건은 청소년 사회화의 중심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교사의 권위와 학교의 교육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다양한 디지털 환경과 경쟁하며 시민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진단하였다.

- 브리핑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이 학교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혐오와 조롱 문화가 정치적 경쟁과 사회적 승인 속에서 청소년 문화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분석하였다.
 - 혐오와 조롱이 ‘정치적 경쟁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때 사회적 승인을 얻고, 청소년 문화 속에서 놀이와 모방의 형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 정치권이 혐오와 조롱을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소비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존중과 책임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브리핑은 디지털 시대 시민교육이 민주주의와 인권, 참여와 토론을 넘어 공동체 규범과 책임, 상호 존중을 함께 학습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생활교육은 단순한 질서 유지나 통제의 장치가 아니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공동체 규범을 학습하는 시민교육의 실천 과정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브리핑은 주요 정책과제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 체계 구축 ▲생활교육은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의 재정립 ▲학생선수 시민성 교육의 제도화 ▲디지털 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국가 지원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회·도덕·국어·역사·정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 하여 플랫폼과 민주주의, 밈과 혐오, 알고리즘과 공론장, 허위정보와 시민성 등을 다루는 범교과적 디지털 시민성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아울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학생선수 시민성 교육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스포츠맨십, 디지털 시민성,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책임 등을 학생선수 필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브리핑을 작성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시대 혐오와 조롱 문화가 학교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사회화 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 연구위원은 “청소년들은 혐오를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묵인하고 정치권이 승인한 혐오를 학교 안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혐오와 조롱이 놀이가 되는 시대에 학교는 금지와 통제를 넘어 민주적 시민성을 회복하고 학교 규율 등의 형태로 공동체의 규범을 학습하는 공적 공간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